SK 평균연봉 7000만원 육박 1위

한화·휴켄스·호남도 최상위권 포진 ... 대한유화·삼성·LG도

2006년 상장기업 가운데 직원 1인당 연봉이 가장 많았던 곳은 신한금융지주로 1인당 1억원에 육박하는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지주를 비롯해 지주사와 금융·화학기업의 연봉수준이 비교적 높았으며 10대 그룹 가운데에는 SK그룹의 직원 연봉이 가장 많았다.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581사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06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3914만원으로 집계됐다.

2005년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576사)의 1인당 평균 연봉 3668만원보다 6.7% 증가한 것이다.

1인당 평균 연봉이 5000만원을 넘는 상장기업은 전체의 19.5%인 113사로 27사 늘었다.

2006년 상장기업 연봉 1위는 신한지주로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이 무려 9800만원에 달했다. 특히, 남자 직원의 1인당 연봉은 1억1000만원을 기록했다.

신한지주 외에도 녹십자홀딩스(6900만원)와 GS홀딩스(6500만원) 등 업무특성상 소수의 전문인력으로만 구성된 지주사들이 연봉 상위를 차지했다.

신한지주 다음으로는 SBS의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이 7530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벤처 캐피털인 KTB네트워크가 7200만원으로 3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국민은행(6660만원)과 외환은행(6654만원) 등 금융기업의 연봉 수준도 높았다.

석유화학과 정유 등 화학기업도 연봉 상위그룹에 다수 포진했다.

SK가 6924만원으로 5위에 오른 것을 비롯해 한화석유화학(6500만원), 휴켄스(6375만원), 호남석유화학(6300만원), 대한유화(6200만원), 삼성정밀화학(6200만원), LG석유화학(6131만원) 등 7개 화학기업이 상위 30위권에 랭크됐다.

대림산업(6800만원), 고려개발(6452만원), 현대건설(6400만원), 코오롱건설(6208만원), 벽산건설(6100만원), GS건설(6072만원) 등 건설기업과 서울도시가스(6262만원), 대한도시가스(6100만원), SK가스(6100만원) 등 가스기업의 연봉도 상위권에 올랐다.

POSCO도 6080만원으로 30위권에 합류한 반면 삼성전자는 5330만원으로 82위에 그쳤다.

한편, 10대 그룹 가운데서는 화학·에너지 계열사가 많은 SK그룹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계열사 직원 연봉이 평균 553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SK의 1인당 연봉이 7000만원에 육박했으며 SK가스와 대한도시가스, 부산도시가스(5900만원) 등 가스기업의 연봉수준도 높았다.

이어 루이 5432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현대중공업그룹과 LG그룹은 각각 5415만원과 5102만원으로 3위와 차지했다. 삼성그룹(5071만원)과 현대자동차(5063만원)의 직원 평균 연봉도 5000원을 넘었고, 한진그룹(4932만원), GS그룹(4580만원), 한화그룹(8만원) 순이었으며 식음료기업이 많은 롯데그룹이 3818만원으로 10대 그룹 가운데 가장 낮았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4/02>